
 금융위원회	보도반박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9.7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	

## 제 목 :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.

### 1. 기사 내용

- ☐ 연합뉴스, 헤럴드 경제 등은 9.7일자 “금융당국 전세대출 제한 검토...”, “무주택 전세대출도 조인다”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전세대출 추가 억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”, “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현재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·관리하고 있으며,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.
  -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및 서민·실수요자 등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.
- ☐ 현재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특히, 전세대출 규제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의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.